

아가의 알레고리적 해석 역사 연구

이유미*

1. 들어가는 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아가만큼 독특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있을까? 아가는 성경의 위치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먼저, 성경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원사, 계약신앙과 같은 신학적 단골 주제들이 이 책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가에는 신에 대한 언급이나,¹⁾ 신을 향한 어떠한 묘사의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 내용은 또 어떠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인 성적 묘사로 가득 차 있다. 수 세기 동안 아가서가

* 루터대학교 강사, 구약학

- 1) 『개역개정』 성경은 아가서 8장 6절을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고 번역한다. ‘여호와와 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헤베트야(*salhebetyah*)이다. 구약성경에서 이 형태는 오직 본 절에서만 등장하지만, 동일하게 불, 화염의 의미의 살헤베트(*salhebet*)는 몇 군데에 등장한다(겔 21:3; 욥 15:30). 우리말 성경은 바로 이 살헤베트에 접미사 야(*yah*)가 붙은 것으로 이해하며, 이는 여호와와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네 개의 자음(YHWH) 중 일부이며, 그렇기에 이를 ‘여호와와 불’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접미사는 구약성경에서 드물지만 과장된 의미나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시 118:5; 램 2:31). 이 외 아가의 나머지 부분에선 신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갑작스러운 신의 등장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의미의 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본 절은 불과 관련된 단어들(*resaph, as, salhebetyah*)이 함께 나열되어 있어서, 점차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인 살헤베트야는 보다 과장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본 저자가 제안하는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 불길은 불의 화염, 강력한 불길이다.’

오경 이외의 다른 성경 본문 보다 훨씬 많이 해석되었다는 점은, 학자들이 이 책을 해석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²⁾

아가를 둘러싼 주장들은 큰 맥락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 책을 종교적인 책으로 볼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을 세속적인 책으로 볼 것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논쟁 중에서 오랜 시간 아가 해석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한 가지 해석적 방법인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아가의 정경성과 문학적 성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은 어떻게 해결점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이 시간과 종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는지를 본 논문은 다룰 것이다. 또한 아가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이 가지는 난점과 이에 대한 해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논쟁의 책과 알레고리적 해석

아가는 성경 속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은 곧 성경을 만들어 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책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아가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아가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책은 등장하지 않는다.

2) P. S. Alexander, *The Targum of Canticle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3), 34; 신약성경의 주석수와의 비교는 19세기에 교부들의 방대한 저술들 목록을 편집해 출판된 *Patrologia Latina*를 통해서 볼 수 있다. 4세기의 히에로니무스와 암브로시우스에서부터 11세기의 베드로 다미아노까지 아가에 대한 라틴어 주석은 32개가 목록에 올라 있다. 이와 비교해서 바울서신 중 갈라디아서는 단지 6개가 목록에 올라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각각 13개와 16개의 주석이 올라 있다. J. P. Migne, ed., *Patrologia Latina* (Paris: J. P. Migne, 1883ff), 219, 109-111; E. Kallas, "Martin Luther as Expositor of the Song of Songs," *Lutheran Quarterly* (1988), 323에서 재인용.

신약성경 역시도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지만, 아가에 대한 인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필로나 요세푸스와 같은 초기의 유대교 작가들은 아가에 대해 거의 침묵하고 있으며, 오로지 에스라 4서와 집회서 정도에서만 약간의 암시를 찾아 볼 수 있다.³⁾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만들어 낸 신앙공동체 안에서 아가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아가가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많이 읽혀졌음을 암시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을 어떤 책으로 규정할까 하는 논쟁은 정경화 과정 속에서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기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아가 및 몇 권의 책⁴⁾을 정경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다. 이러한 논쟁 중에 아가를 정경의 위치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는 바로 랍비 아키바(Rabbi Aqiba)이다. 아키바는 강한 어조로 아가의 거룩성을 다음과 같이 변호한다. “신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아가에 대해 논쟁한 적이 없다. 즉 이것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손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논쟁한 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 책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그 때만큼 가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거룩하지만, 아가는 그 중 가장 거룩하다.”(m. Yad. 3:5)⁵⁾ 아키바는 아가의 표제의 최상급 표현을 염두에 둔 언어유희로 아가의 정경성을 변호한다.⁶⁾ 아키바 이래로 아가를 알레고리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장이 열렸

3) 에스라 4서와 아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M. E. Stone, “The Interpretation of Song of Songs in 4 Ezra,” *JSOJ* 38 (2007), 226-233; 집회서 24장에서 지혜가 스스로에 대해 찬미하는 노래와 아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Larry L. Lyke,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유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43-150를 참조하라.

4) 아가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에스더서 그리고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전도서와 같은 책이 랍비들 사이에서 정경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5) J. A. Kates, “Entering the Holy of Holies: Rabbinic Midrash and the Language of Intimacy,” *Scrolls of Love: Ruth and the Song of Songs*, P. S. Hawkins and L. C. Stahlberg, ed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6), 201에서 재인용.

다. 아가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초기 유대교에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도 19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아가에 대한 긍정성에 대해 긍정하는 해석이 오랫동안 성경 해석 역사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가에 대한 의문의 눈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기 4세기 안디옥 학파에 속한 뭉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 ca. 350-428)는 아가가 거룩한 책 속에 속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그는 아가에 서의 하나님 언급의 부재는 단순히 이 책이 사랑 노래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아가는 솔로몬이 프라오의 딸과의 결혼(왕상 11:1)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작한 사랑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기독교의 성경 안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한다.⁷⁾ 사후에 테오도르는 아가에 대한 이러한 관점으로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년)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 그의 주석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오로지 이 주석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아가의 문자적 의미를 주장하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다시금 대두된다. 세바스찬 카스텔리오의 아가에 대해 테오도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카스텔리오는 아가가 사랑을 노래한 시이며, 그렇기에 이는 비도덕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서 정경의 위치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이러한 해석으로 결국 카스텔리오는 존 칼뱅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였다.

6) 『개역개정』에서 ‘솔로몬의 아가(雅歌)라로 번역되어 있는 아가의 표제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최상급의 문법으로 אֲשֶׁר לְשֵׁלֵמָה שִׁיר הַשִּׁירִים 즉, ‘솔로몬의 노래 중 노래/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해석될 수 있다. 아키바는 아가의 거룩성을 설명할 때에 또 다른 최상급의 표현을 덧붙인다. 즉 이 책은 קִנְיָת הַקְּדוּשִׁים ‘거룩한 것 중 거룩한 것/가장 거룩한 것’이다. 동시에 성전에서 누구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게 성별된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키는 용어인 ‘코데쉬 하코다침’을 아키바가 사용한 것은 아가 역시 함부로 다루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강조해 준다.

7) J. C. Exum, *Song of Songs: a Commentary*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5), 73.

8) Kallas, “Martin Luther as Expositor of the Song of Songs,” 324.

이처럼 아가의 정경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으나, 그럼에도 아가를 신앙의 책으로 인정하게 했던 데에는 분명히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 본래 문학을 해석하는 방식의 알레고리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대표적 서사시인인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작품은 후대의 진보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 신들을 변덕스럽기도 하며 부도덕한 모습으로 자주 그려냈고, 따라서 플라톤과 같은 후대 철학자들은 이들이 그려낸 신화에 대해 비판하였다.⁹⁾ 알레고리 해석 방식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작품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는 우스꽝스러운 허구에서 '최고의 과학 및 철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숨겨진 진리의 상징적 표현'¹⁰⁾으로 재해석되었다. 알레고리의 사용으로 그리스인들은 이 서사시를 자신들의 성서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아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가의 내용적이고 문학적인 특징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유대교와 기독교 학자들은 알레고리라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호한다. 알레고리적 방식은 외견상으로 의문시 되는 본문에 문화적이고 사상적으로 연관성을 부여함으로써 본문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본문을 알레고리적 방식으로 해석할 때에, 유대교와 기독교 학자들은 주로 그 본문 안에서 주요한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거나, 또한 정통성이 인정되는 사상과 연관을 지어 해석한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 아가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가운데, 알레고리 해석자들은 정경 속에서 아가의 존재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 역사와 주요한 신학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

9) T. Longman III, *Song of Song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2001), 24.

10) S. G. Sowers, *The Hermeneutics of Philo and Hebrews* (Richmond: John Knox Press, 1965), 12.

3. 유대교의 알레고리 해석

3.1. 역사적-집단적 알레고리

랍비 아키바 이후 유대교 미드라쉬 문학은 아가의 개별 구절들을 취하여 다양한 상황들과 연관시킨다. 미드라쉬적 해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다른 본문의 인용을 통해 특정 구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가 랍바』에서 바로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는 아가 1장 10절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뿔미로 아름답구나”에 대한 설명이다.

그것들(말씀)이 오경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씀과 성문서와 연결될 때에, 불이 그 가운데 번쩍이며, 그 말씀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와 같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본래 받았던 것도 불과 함께였지 않는가? 즉 말하기를 “그리고 그 산이 하늘의 중심에서 불길이 충천하였다”(신 4:11)하지 않았는가? 랍비 벤 아자이(Ben Azzai)가 앉아서 해설할 때에, 불이 그를 둘러쌌다. 그들이 랍비 아키바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 벤 아자이가 앉아서 해설할 때에, 불이 그를 둘러싸고 번쩍었나이다.’ 아키바는 벤 아자이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이 해설하는 동안 불이 당신 주변에서 번쩍었다고 들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하였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전차(merkābāh)의 비밀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단지 율법의 말씀을 다른 것과 연관시켰고, 그리고 나서 예언자들의 말씀과 연관시켰으며, 성문서와 예언자들을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처럼 그 말씀이 기뻐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본래의 말씀에서처럼 달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수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고 그 산이 불로 불탔다” 하지 않았습니까?’¹¹⁾

11) “*Song of Songs Rabbah*,” *Midrash Rabbah* vol. 9, M. Simon, trans., H. Freedman

이 해석만 보았을 때 아가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본 구절의 문자적 의미는 여성의 뺨과 긴 목덜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나, 미드라쉬는 이러한 문자적 의미가 아닌 그 이면의 암시적 의미를 본다. 즉, 뺨과 목덜미는 ‘오로지 말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¹²⁾이다. 그렇기에 이후 미드라쉬는 뺨과 목덜미를 알레고리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제 구체적인 신체는 ‘말씀’을 암시하며, 그 말씀은 곧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와 연관시켜 해석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이는 정경적 배경이 미약한 아가에 역사적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다른 성경 본문과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 역사적 연결고리는 아가 속 남녀 주인공이 단순히 인간적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모습이 아닌 각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가에서 사용되는 모티브들이 익히 예언서나 다른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모티브이기 때문이다.¹³⁾ 그래서 유대교 알레고리 해석은 근본적으로 아가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역사를 본다. 이러한 역사적 알레고리 해석은 아가 해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

7세기까지 모아진 미드라쉬 모음집인 『아가 랍바』에서 랍비들은 아가의 개별 구절이나, 선별한 구절을 취해서 이 구절들을 다른 성경의

and M. Simon, eds., (New York : Soncino Press, 1983), 1.10:2.

12) Ibid., 1.10:1.

13) 예를 들어 결혼의 모티브, 사랑의 모티브, 자연에 관련한 모티브들은 구약성경에서 신학화 되어 종종 사용되는 모티브들이다. 아가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는 J. M. Munro, *Spikenard and Saffron: The Imagery of the Song of So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이 있다. 또한 라이크는 전혀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책이 아닌 아가를 신학 전통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모티브로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문학적이고 문화적인 반응력(the literary and cultural competence)이라고 보았다. Larry L. Lyke,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20-21.

매우 다양한 상황과 역사와 연관시킨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해석은 어떤 정해진 역사적 틀 안에서 아가 본문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이 본문을 활용하여, 통일성을 주기 보다는 너무 다양한 결론을 내었고, 통합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해설에 그쳤다. 예를 들어 랍비들은 아가 속 남성 주인공을 일관되게 하나님과 연관시키지만,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암시하는 것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¹⁴⁾

역사적 알레고리 해석은 서기 6세기와 8세기 사이의 작품인 탈군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드라쉬 랍바와 탈군은 그 근본이 되는 해석 원칙, 즉 역사적 알레고리 해석의 원칙은 서로 동일하지만, 그 문학적 유형은 다르다. 탈군은 히브리어 본문을 아람어로 매우 자유롭게 풀어 쓴 번역물인 반면, 미드라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가의 모든 절들을 먼저 문자 그대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여러 랍비 권위자들의 주석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¹⁵⁾ 그러므로 탈군은 아람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미 독창적으로 아가의 시적 표현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미하며 사랑의 대화와 연관된 여러 역사적 정황들을 함께 배치하였다. 결국 탈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내러티브들은 아가의 전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구조로서 등장한다.¹⁶⁾ 이로써 다양하고 비일관된 해석을 보여주는 미드라쉬와는 달리 탈군은 하나의

14) 랍비들은 여성을 공부하는 집, 개인 현자, 모세,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개인 여성, 지방 법정, 산헤드린, 의인의 모임, 이스라엘 공동체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D. M. Carr, "The Song of Songs as a Microcosm of the Canonization and Decanonization Process," H. G. Kippenberg and E. T. Lawson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Leiden: Koninklijke Brill, 1998), 175-176, 특히 no. 9을 참조하라.

15)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4), 831-832.

16) E. M. Menn, "Targum of the Song of Songs and the Dynamics of Historical Allegory," C. A. Evans, ed.,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 Studies in Language and Tradi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Supplement Series 3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424.

일관된 관점에서 아가를 해석한다.

탈굽은 표제에 해당되는 첫 구절인 '솔로몬의 아가/노래 중 노래'(song of songs)라는 표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의 방향을 선보인다. 탈굽은 여기에서 10개의 노래 목록을 보여준다. 이 10개의 노래는 아담으로부터 종말론적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세상 역사 동안에 불러진다. 첫 번째 노래는 시편 92편에 있다. 이는 '안식일의 찬송 시'라고 나타난다. 이 노래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부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두 번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이다. 여기에서 모세/미리암과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들의 해방을 축하하고 이집트인의 멸망을 기뻐한다. 세 번째 노래는 민수기 21장 17-18절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예비하심을 찬양한다. 네 번째 노래는 신명기 32장 1-43절로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한다. 다섯 번째 노래는 여호수아 10장 12-13절로 여호수아가 태양이 계속 떠 있어 이스라엘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여섯 번째 노래는 사사기 5장 1-31절로 이스라엘이 하술의 장군 시스라에게서 구원받았을 때에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것이다. 일곱 번째 노래는 사무엘상 2장 1-10절로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길 때 부른 노래이다. 여덟 번째 노래는 사무엘하 22장 1-51절로 적으로부터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바친 다윗의 찬양이다. 아홉 번째 노래가 바로 아가이다. 아가는 출애굽부터 미래의 종말론적 왕국으로까지 연대적 순서로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책이다. 첫 번째 노래로부터 아홉 번째 노래까지는 이미 세상에 등장한 찬양이라면 마지막 열 번째 노래는 이사야 30장 29절로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때에 부를 기쁨의 노래이다. 이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찬양이다. 그러므로 아가는 세상에서 부른 노래 중 가장 위대한 노래이다.¹⁷⁾ 이 위대한 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내온 역사를 개괄하고 미래적 희망의 비전을 선보인

17) Lyke,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161-170.

다.18) 탈굼의 이러한 역사적 알레고리 해석 방식은 중세의 유대교 주석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0-12세기 중세 유대교 해석가들 중 사아디아 가온(Saadya Gaon, 10세기), 라시(Rashi, 11세기),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Abraham ibn Ezra, 12세기) 등은 탈굼의 이러한 역사적 알레고리 해석을 따른다.

3.2. 철학적 알레고리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대교 아가 해석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역사적 알레고리였지만, 이 방법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비주류에 속해 있던 두 가지의 또 다른 유형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었다. 이 중 하나는 이른바 철학적 유형의 알레고리적 방식이다. 역사적 알레고리가 이념적으로 구약성경의 예언자들과 같은 노선을 따른다면, 중세에 등장한 새로운 알레고리적 방식은 철학적 유형의 알레고리 접근 방식으로 이는 지혜 문학 전통 안에 그 뿌리를 둔다.19) 역사적 알레고리에서 집단적인 전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철학적 알레고리는 개인주의적 접근과 더불어 지혜의 인격화에 그 뿌리를 둔다. 즉 아가의 남녀 관계는 인격화된 지혜와 그 제자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의 알레고리는 모세 마이모니데스(Mose Maimonides, 1135-1204)로부터 시작된다. 마이모니데스는 아가 속 남녀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능동 지성과 수동 지성의 관계로 이해한다.20) 능동 지성은 곧 창조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18) ①1:2-4 프롤로그: 여는 찬양; ②1:5-3:6 출애굽, 시내산, 정복; ③3:7-5:1 초기 왕국과 성전건축; ④5:2-6:1 이스라엘의 배교, 바빌로니아 포로기, 회개; ⑤6:2-7:14 제2성전 시대, 디아스포라; ⑥8:1-10 종말론적 사건들과 메시아적 왕국; ⑦8:11-14 에필로그: 닫는 기도. G. H. Johnston, "The Enigmatic Genre and Structure of the Song of Songs, Part 2," *Bibliotheca Sacra* 166 (2009), 164.

19)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843.

지성으로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아가에서 남성으로 등장한다. 수동 지성은 바로 인간 영혼이며 이는 아가에서 여성으로 등장한다. 능동 지성은 인간 영혼을 열렬히 사랑하고, 수동 지성은 능동 지성과의 결합을 열렬히 소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가가 노래하는 바이다. 이처럼 철학적 알레고리는 헬라 철학과 유대교 전통을 결합시키려고 한다. 마이모니데스의 영향을 받은 중세 유대교 학자로는 이븐 아크닌(Ibn Aknin, 1150-1220), 레위 벤 게르손(Levi ben Gershon, 1288-1344) 등이 있다. 철학적 알레고리 방식은 역사적 알레고리 방식과는 달리 아가 해석에 있어 탈역사화하고 개인화하고 있다. 즉, 어떤 집단의 공통된 기억과 역사가 아닌 개인 영혼의 하나님께 이르려는 열망을 아가에서 읽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3.3. 신비주의적 알레고리

집단적인 역사 해석이 아닌 개인이 하나님께 이르려는 열망을 보는 또 다른 비주류 알레고리 방식은 이른바 신비주의적 알레고리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차이점은 철학적 알레고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신비주의적 알레고리는 초이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심오한 본질에 대한 지식은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주어진다. 유대교 신비주의의 시작은 『미슈나』(하기가 2:1)에서 나오는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서기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 문헌은 경전 중 두 가지 본문에 대해서는 해석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은 창조 이야기의 ‘태초의 일’(ma’ásēh b’rē’ šīt)과 에스겔 1장의 ‘전차의 일’(ma’ásēh merkābāh)이다.²¹⁾ 이 두 가지

20) Exum, *Song of Songs*, 74.

21) W. Horbury, “The Books of Solomon in Ancient Mysticism,” D. F. Ford and G. Stanton eds., *Reading Texts, Seeking Wisdom: Scripture and Theology* (London:

본문과 주제는 유대교 경전 해석과 분리되어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한다. 이는 오로지 소수의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전(秘傳)의 주제를 다룬 하나의 문헌이 아가에 대한 초기의 신비적 알레고리 해석으로 여겨지는 「쉬우르 코마」(*Shi'ur Qomah* '신체의 치수')이다. 이 신비주의 문헌은 '전차의 일'과 연관해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보좌 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묘사에서 하나님은 신인동형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이 남성의 모습으로 그려진 이 책은 아가 5장 10-16절에서 남성 연인의 아름답고 늠름한 신체를 찬양하는 부분과 매우 유사하며, 쉬우르 코마는 아가에 대한 신비적 알레고리 해석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²²⁾ 이러한 신비적 알레고리는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의 문헌들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²³⁾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다. 이는 신랑과 신부의 합일에서 즐거움을 맛보듯이 신비로운 일이다. 이러한 신지학(神智學, theosophy)적인 원리를 지닌 신비적 알레고리 해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4. 기독교의 알레고리 해석

아가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알레고리 해석은 히폴리투스(Hippolytus, 200년 경)와 오리겐(Origen, 185-253년)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이 아가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을 유대교 전통에서 영향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동시대의 랍비 문학과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탈굽이 등장하기 이전의 미드라쉬적 해석은 아가에 대해

SCM Press, 2003), 187-188.

22) 조지프 댄,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 이종인 역 (경기: 안티쿠스, 2010), 31-32.

23) A. Green, "Intradivine Romance: The Song of Songs in the Zohar," P. S. Hawkins and L. C. Stahlberg eds., *Scrolls of Love: Ruth and the Song of Song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6), 214-227.

원자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단편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반면, 히폴리투스과 오리겐은 통합된 주석 형식을 통해서 아가 전체를 해석한다. 오히려 이러한 통합성은 유대교 아가 해석(탈굼) 보다 훨씬 앞선다.²⁴⁾ 이제 기독교 해석자들은 아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개인 영혼의 애끓는 사랑의 내용을 발견한다.

4.1. 오리겐의 알레고리

특별히 오리겐은 아가에 대한 기독교의 알레고리 해석에 가장 영향력이 큰 학자이다. 아가 해석에 관해서 아마도 오리겐은 유대교에서 랍비 야키바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그는 성경 전체를 기독교 신앙의 신비에 관한 상징적 이야기로 보았다. 이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²⁵⁾ 오리겐의 해석은 이후 등장하는 아가에 대한 거의 모든 기독교 해석의 주제를 정하는 데에 공헌했다.²⁶⁾ 오리겐은 드라마 형식으로 솔로몬이 쓴 혼인의 노래로 아가를 설명하며, 이 혼인의 노래는 그리스도와 교회(때로는 개인 영혼) 사이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리겐은 아가가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땅의 연인을 버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으로서의 본성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였다.²⁷⁾ 오리겐은 특별

24) Carr, "The Song of Songs as a Microcosm of the Canonization and Decanonization Process," 177; idem., "For the Love Christ: Generic and Unique Elements in Christian Theological Readings of Song of Songs," C. Helmer, ed., *The Multivalence of Biblical Texts and Theological Meanings* (Leiden: Brill, 2006), 15-16.

25)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1 (2014), 37-38.

26) Lyke,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229-231.

27) Carr, "The Song of Songs as a Microcosm of the Canonization and Decanonization Process," 177.

히 아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데, 이는 정경 속 노래들에 대한 그의 특별한 이해에 기인한다. 구약성경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 속 노래들은 단순히 향응을 위한 노래나 멜로디가 아니다. 성경 속 노래들(운문)은 전형적으로 '천사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된다.'²⁸⁾ 이는 오리겐이 아가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기에 오리겐은 성경 속 노래들이 위대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즉, 노래라는 수단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들이 인간의 마음과 지식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²⁹⁾ 그렇기 때문에 아가를 해석할 때에 영적인 해석이 아닌 '문자적' 의미는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한다. 오리겐에게 있어 아가는 알레고리 자체이다.³⁰⁾ 아가는 처음 기록될 때부터 저자인 솔로몬에 의해서 알레고리로 의도되어 저작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반드시 문자적 의미 이면의 또 다른 의미를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리겐이 기독교 해석사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이는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서 아가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거의 1500년 동안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역사적 알레고리

오리겐의 영향 하에 중세 기독교 아가 해석은 몇 가지 방향으로 발전된다. 첫 번째는 아가를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사랑의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알레고리가 더하여져 기독교적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가 있었다. 아가는 오로지 기독교 교회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28) Origen, "The Song of Songs: Commentary and Homilies," R. P. Lawson, ed. and trans. *The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26 (Westminster: Newman Press, 1961), 46.

29) Kallas, "Martin Luther as Expositor of the Song of Songs," 326.

30) 킹(J. C. King)은 이를 '완전한 알레고리'(total allegory)라고 이름 붙인다. J. C. King, *Origen on the Song of Songs as the Spirit of Scripture: The Bridegroom's Perfect Marriage-Song*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8-39.

이는 옛 계약과 새 계약 모두의 율법 아래 있는 관계를 포괄한다. 12세기 학자인 호노리우스 아우구스토두넨시스(Honorius Augustodunensis)는 이를 종말론적으로 접근하여 아가가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¹⁾ 리라의 니콜라스(Nicholas of Lyra, 1270-1349) 역시도 아가 속 관계에서 교회와 이스라엘 모두가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유대교의 주석가 라시의 영향을 받아 아가 1-6장을 이스라엘의 알레고리적 역사로, 7-8장을 교회의 역사로 분석한다.³²⁾ 니콜라스는 아가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만남, 멀어짐, 후회와 화해의 반복을 태초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실제 역사적 흥망성쇠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처음 여섯 개의 장은 구약성경 시대의 언급으로 출애굽, 율법 수여, 광야 유랑, 약속의 땅 입성, 다윗 왕국의 건설과 멸망, 포로, 이후 마카비 시대까지 아우르며, 관계의 흥망성쇠를 보여준다. 나머지 7-8장은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의 기독교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계약의 시대를 암시한다.

또 다른 해석의 방향은 마리아론적 접근방식이다. 이는 아가를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 사이의 사랑의 노래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Ambrose, 340-397)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영혼은 마리아와 동일시되며, 이는 영적인 자궁에 '말씀'을 받아 영적 생명을 잉태한다.³³⁾ 또한 마리아는 동정녀의 모델로 여겨진다. 아가 4장 12절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31) E. A. Matter, “The Love Song of the Millennium: Medieval Christian Apocalyptic and the Song of Songs,” P. S. Hawkins and L. C. Stahlberg, eds., *Scrolls of Love: Ruth and the Song of Song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6), 242.

32) P. S. Alexander, “The Song of Songs as Historical Allegory: Notes on the Development of an Exegetical Tradition,” K. J. Cathcart and M. Masher, eds., *Targumic and Cognate Studies: Essays in Honour of Martin McNamara* (Sheffield: JSOT Press, 1996), 20-25.

33) F. B. A. Asiedu, “The Song of Songs and the Ascent of the Soul: Ambrose, Augustine, and the Language of Mysticism,” *Vigiliae Christianae* 55 (2001), 306.

봉한 샘이라”를 마리아의 동정성으로 이해한다.³⁴⁾ 이 해석은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을 기반으로 12세기에 유행하였다.

4.3. 신비주의적 알레고리

중세 후기 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점은 신비주의적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 해석에서 아가는 개인 영혼이 어떻게 영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아가가 가지는 성애적 성격을 더욱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영성의 에로스로 바꾸어 놓는다.³⁵⁾ 이러한 관점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x, 1090-1153)에게서 잘 나타난다. 베르나르는 개인 영혼과 하나님의 신비적 결합을 아가에서 본다. 그러므로 아가 속에서 드러나는 남녀 사이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이제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신비적 연합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사랑받는 영혼이 완전하게 될 때에, 신랑은 그녀와 영적인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의 육체로가 아닌 하나의 영 안에서 둘이 될 것이다.”³⁶⁾ 베르나르는 아가에 대해 86개의 설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아가 1-2장에 대한 설교였다. 이러한 분량만 보더라도 그가 아가에 대해 성적인 것과는 무관한 해석을 심어주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아가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의 노래가 아닌 한 영혼과 하나님의 신비적 결합에 대한 적극적인 가르침을 제공한다.

34)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863-864.

35) D. M. Carr, “Rethinking Sex and Spirituality: The Song of Songs and Its Readings,” *Sound* 81 (1998), 425.

36) Cant. lxi, i, in D. C. Butler, *Western Mysticism*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6), 96 I. L. Gótz, “Sex and Mysticism,” *Crosscurrents* (2004), 7에서 재인용

이러한 신비적 해석은 16세기의 여성 작가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에게도 이어졌다. 테레사는 이 열정적 서정시에서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적 결혼의 신비를 발견한다. 그녀는 아가 속 성적 어휘가 영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녀는 만일 하나님과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입에 입맞춰 주길 원하노라”(아 1:23)라는 말로 시작하는 아가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가를 매일 읽을 수도 없거니와 실행에 옮길 수도 없다; 그들은 진실로 그 위엄으로 경외감을 주는 그 말씀(아가)을 감히 말할 수조차도 없으리라.”³⁷⁾

4.4. 정치적 알레고리

16세기는 또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아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전의 해석 전통을 모두 비판한다. “우리는 이 책(아가)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파라오의 딸에 관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을 하나님과 회당의 결합으로 해설하거나, 성서 비유 학자들 같이 신실한 영혼의 결합으로 해설하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러한 견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³⁸⁾ 루터는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던 안디옥 학파나, 또한 회당과의 결합을 설명하는 유대교의 해석, 그리고 전적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대신 루터는 동시대의 신성로마

37) *Meditaciones*, Cap. 1, 12, in Santa Teresa de Jesús, *Obras Completas*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 1967), 337; I. L. Götz, “Sex and Mysticism,” 9 에서 재인용.

38) H. C. Oswald, H. T. Lehmann and J. Pelikan, eds., *Luther's Works*, vols. 56 (Saint Louis : Concordia Pub. House, 1955-1986), 15, 194-195.

제국 황제인 막시밀리안 황제(1459-1519)의 글 “유명한 영웅이자 기사인 토이어당크 경의 위험과 모험(The Dangers and Adventures of the Famous Hero and Knight Sir Teuerdank)”에 힌트를 얻어 다른 형태의 해석을 제시한다. 막시밀리안 황제의 글은 허구이지만, 그 안에 저자인 황제의 개인적인 경험이 표현되어 있다. 루터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자신의 문학 작품 속에서 그 개인적 경험들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그러므로 루터에게 있어서 아가의 저자인 솔로몬은 단순히 알레고리적 암시의 존재가 아니다. 그가 바로 주인공이다. 결국 솔로몬은 아가를 통해 풍요하고 평화로운 왕국과 좋은 백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개인적인 감사를 올리는 것이다. 아가는 어떤 집단의 공통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솔로몬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의 모티브에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다. 칼라스는 이러한 루터의 견해가 알레고리적 방식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⁴⁰⁾ 그러나 실제로 루터 역시도 알레고리적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결국, 신부는 솔로몬 자신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나타내며, 신량은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루터의 해석을 이른바 ‘정치적 알레고리’라고 부른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느리지만 서서히 알레고리적 해석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아가 해석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권위(오직 성경으로만 *sola scriptura*)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권위에 루터는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가와 같은 성격의 책을 해석할 때에 여전히 알레고리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성경 해석에도 과학적인 합리주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성경은 변증의 대상이 아닌 논증의 대상

39) Kallas, “Martin Luther as Expositor of the Song of Songs,” 333.

40) Ibid., 323-341.

이 되었다. 그러므로 변증을 목적으로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알레고리 해석은 점차 역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에 그 왕좌를 내어주어야 했다.

5. 알레고리 해석의 한계와 아가 본문의 한계

성경 해석 역사 속에서 알레고리 해석은 가장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가져 왔던 해석 방법이었다. 그리스 문학에서 처음 이 해석 방식이 시도된 가장 큰 배경에는 '변증'에 있었다.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역시 알레고리 방식이었다.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숨겨진 진리를 찾아내는 작업은 사실 알레고리 해석의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 이 해석의 가장 큰 장점과 더불어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기인한다. 즉 이 해석은 성경의 어느 구절도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는 해석하는 사람의 명백한 자의적 해석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지닌다.

알레고리 해석에서 성경 본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읽은 해석자이다. 해석자에 의존하는 방식은 그 해석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오죽하면 킬(O. Keel)이 “만약 두 명의 알레고리 학자들이 어떤 구절의 해석에서 동일한 설명을 하였다면, 이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베꼈을 때뿐이다”⁴¹⁾라고까지 했을까! 바로 이러한 자의적 성격으로 현재의 성경 해석 경향에서 알레고리 방식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41) O. Keel,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8.

지금까지 살펴본 아가에 대한 알레고리 해석 역시 수많은 주장과 견해들이 등장한다. 아가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본문 속 남성과 여성을 각각 하나님/그리스도와 집단/개인/영혼 등 다양하게 적용한다. 아가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이 책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는 아가 자체가 알레고리 문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가에는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을 비유적으로 읽도록 의도하였다는 힌트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에는 물론 알레고리 문학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다.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요담의 우화가 하나의 예이다. 저자는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는 이야기에서 독자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기를 바란다. 독자는 요담의 우화의 전후 문맥 통해서 저자의 의도와 암시를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또한 아가와 유사하게 사랑시처럼 보이는 알레고리 본문도 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그 예이다. 이 노래는 비유(1-2절)가 등장하고, 뒤에서 그 비유에 대한 알레고리적 의미가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다(7절). 이도 역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암시적 의미를 예언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가는 어떠한 문학적 맥락 안에서든 이 노래가 '사랑' 이외에 어떤 다른 암시적 의미를 보여주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아가는 암시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다. 아가는 남녀 간의 사랑, 헤어짐, 갈구, 욕망, 육체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무엇이 이러한 구체적인 노래를 학자들로 하여금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으로 수세기 동안 설명하게 하였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이것이 정경화되기까지 신앙공동체에서 읽혀질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책을 '그렇게' 읽게 하였는가? 알레고리적 해석이 오랜 시간 아가 해석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가 본문이 가지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비록 아가가 알레고리 문학은 아닐지라도, 알맞게도 아가에는 알레

고리적 해석을 조장하는 면모들이 분명히 있다. 첫째, 이 책은 구약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다. 결혼 및 남녀 간의 사랑의 모티브는 예언자들을 통해 전통적인 신학적 모티브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러한 모티브의 공유는 알레고리 해석자들로 하여금 아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교회/개인으로 해석하게 이끌었다. 둘째, 이 책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불특정 남성과 여성이다. 아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주인공 남성과 여성을 특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솔로몬이나 그의 이집트인 부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힘들다. 아가에서 솔로몬은 여성의 사랑하는 남성과는 별개로 등장한다. 여성 또한 특정하기 힘들다. 술람미 여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도시에 사는 여성이기도 하고, 시골 처녀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여성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불특정성은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에 적합한 인물들로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 이 책이 정경 속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이 책을 알레고리로 해석하게 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경 속에 아가가 포함된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 보다 앞서는지 혹은 뒤서는지에 대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정경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미 신앙의 책으로 이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즉, 아가는 정경화 이전에도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측면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읽혀졌을 것이며, 이는 정경화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아가의 본래 저작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가의 본래적 의미를 찾는 작업 역시 알레고리 해석의 결과만큼이나 다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게 된다. 과거 해석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미 신앙적 책의 테두리 안에 있는 아가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본문이 가지는 한계성은 여전히 이 책에 대한 알레고리 해석을 오랫동안 부추겨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알레고리적 해석과 아가 본문이 가지는 각각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석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가를 해석하는 학자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주어진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6. 또 다른 해석적 제안

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아가가 가지는 난제들을 설명하는데 도전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는 난제로 남아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가이다. 아가의 정경화 이후, 이를 읽는 과거 많은 학자들은 아가를 신앙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다. 즉, 아가는 가장 종교적인 책인 것이다. 그렇다보니 종교적 색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아가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보다는 문자 이면의 영적인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비실체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러한 해석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읽기는 수많은 자의적 해석을 낳았다. 반면, 18세기 이후 아가의 문자적 의미를 더 강조하는 해석들이 알레고리 해석의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아가는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이며, 더 나아가 사랑 노래 모음집(Anthology)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왜 아가가 종교적 문헌으로 읽혔고,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 두 양극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아가의 장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아가는 어떤 장르로 읽혀야 하는가? 장르에 대해 해소가 된다면, 그 책의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가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니열해 볼 필요가 있다. 아가는 정경의 위치에 있는 책이다. 이는 분명히 이 책이 오랫동안 종교적인 책으로 읽혀져 왔고, 신앙의 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책은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아가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표현도 사용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 가지 해석적 대안은 바로 아가를 지혜문학 전통 안에서 읽는 것이다. 필자는 지혜 전통에서 아가를 읽을 때 위의 두 가지 양립하는 상황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약성경에서 지혜문학은 율기, 잠언, 전도서 세 권으로 규정해 왔다. 이 세 권의 책을 지혜문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몇 가지 내용의 특성 때문이다.⁴²⁾ 첫째, 지혜문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주된 관심이 지혜에 대한 것이다. 둘째, 지혜문학에는 오경, 예언서, 묵시문학 등 소위 비지혜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나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 셋째, 지혜문학에서는 인간의 이성, 경험, 사색 등을 통해서 얻어진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다. 넷째, 지혜문학에서 이러한 우주적 질서와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특징적인 방식으로 논쟁적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관점과 그와 반대되는 관점을 나란히 뒹뒹 지혜를 가르친다. 예를 들어 율기의 경우에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중심 주제를 다루면서, 율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율과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관인 인과응보의 사상을 대변한다. 그러나 율기의 저자 혹은 편집저자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신앙과는 다른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에 대해 가르친다.⁴³⁾

이렇듯 지혜문학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아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실제로 아가 속에서 지혜와 관련된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경험 중 하나인 사랑에 대한 사색을 담고 있으며, 또한 다른 구약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 예를 들어 구원사, 계약, 역사를 통한 신앙고백 등과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역시 지혜문학의 특징과 맞물린다. 또한 아가를 통해서도 사랑에 관해 서로 다른 두 관점을

42)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경』 (서울: 동연, 2009), 15-16.

43) 이유미, “아가의 반전(反轉)의 신학,” 『구약논단』 20:2 (2014), 178-179.

가진 두 그룹을 통해서 논쟁적인 방식이 나타난다. 첫 번째 그룹에는 주인공에 해당되는 두 연인이 속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예루살렘 딸들, 형제들, 파수꾼들 등이 포함된다.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후자의 그룹이 전통적인 '사랑'을 대변하고 있다면, 전자의 그룹을 통해서 전통적인 '사랑'개념은 이들의 반전적인 사고로 전복되고 수정된다. 이 두 그룹이 주고받는 사랑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아가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 즉 창조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알레고리 해석이 정경 속의 아가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에, 이 책이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면, 반면 문자적 해석을 지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사랑 노래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어 이 책이 가지는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다. 우리는 아가가 처음에 어떠한 의도로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현재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책이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랑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혜전승 속에서 아가를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 이 두 가지 양립하는 주제는 함께 이해 될 수 있다. 아가는 신과 인간의 사랑이 아닌 인간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러나 그 노래는 단순히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랑을 노래하기 보다는 인간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창조 이후 가장 중요하게 형성된 관계를 노래하고 있다. 아가는 남성과 여성이 창조되던 그 때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 가장 완전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임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아키바 및 알레고리 해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평가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지혜전승 속에서 아가를 해석하는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과 본문의 한계를 함께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적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아가, 알레고리, 해석역사, 성, 사랑 시, 정경, 지혜문학

<Key Words>

Song of Songs, allegory, history of interpretation, sexuality, love poem, Canon, Wisdom Literature

* 접수일 2014년 8월 28일 , 수정일 2014년 8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30일

참고문헌

-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8:1, 2014, 31-50.
- 이유미, "아가의 반전(反轉)의 신학," 「구약논단」 20:2 (2014), 156-185.
-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신 본 성경』, 서울: 동연, 2009.
- 바르비에로, 잔니,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4.
- 댄, 조지프,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 이종인 역, 경기: 안티쿠스, 2010.
- 라이크, 래리 L.,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유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Alexander, P. S. *The Targum of Canticle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3.
- Asiedu, F. B. A., "The Song of Songs and the Ascent of the Soul: Ambrose, Augustine, and the Language of Mysticism," *Vigiliae Christianae* 55, 2001, 299-317.
- Carr, D. M., "Rethinking Sex and Spirituality: The Song of Songs and Its Readings," *Sound* 81, 1998, 413-435.
- Cathcart, K. J. and Masher, M., Eds., *Targumic and Cognate Studies: Essays in Honour of Martin McNamara*, Sheffield: JSOT Press, 1996.
- Evans, C. A. Ed.,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 Studies in Language and Tradi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Supplement Series 3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Exum, J. C., *Song of Songs: a Commentary*,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5.
- Ford, D. F. and Stanton, G., Eds., *Reading Texts, Seeking Wisdom: Scripture and Theology*, London: SCM Press, 2003.
- Freedman, H. and Simon, M., ed., *Midrash Rabbah* vol. 9., New York : Soncino Press, 1983.

- Götz, I. L., "Sex and Mysticism," *Crosscurrents*, 2004, 7-22.
- Hawkins, P. S. and Stahlberg, L. C. Eds., *Scrolls of Love: Ruth and the Song of Song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6.
- Helmer, C., ed., *The Multivalence of Biblical Texts and Theological Meanings*, Leiden: Brill, 2006.
- Johnston, G. H., "The Enigmatic Genre and Structure of the Song of Songs, Parts 1-3," *Bibliotheca Sacra* 166, 2009, 36-52, 163-180, 289-305.
- Kallas, E., "Martin Luther as Expositor of the Song of Songs," *Lutheran Quarterly*, 1988, 323-341.
- Keel, O.,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 King, J. C., *Origen on the Song of Songs as the Spirit of Scripture: The Bridegroom's Perfect Marriage-Song*,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Kippenberg, H. G. and Lawson, E. T.,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Leiden: Koninklijke Brill, 1998.
- Longman III, T., *Song of Song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2001.
- Munro, J. M., *Spikenard and Saffron: The Imagery of the Song of So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Origen, "The Song of Songs: Commentary and Homilies," R. P. Lawson, ed., and trans., *The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26., Westminster: Newman Press, 1961.
- Oswald, H. C., Lehmann, H. T., and Pelikan, J., eds., *Luther's Works*, Vols. 56., Saint Louis : Concordia Pub. House, 1955-1986.
- Sowers, S. G., *The Hermeneutics of Philo and Hebrews*, Richmond: John Knox Press, 1965.
- Stone, M. E., "The Interpretation of Song of Songs in 4 Ezra," *JSOJ* 38, 2007, 226-233.

<초록>

아가의 알레고리적 해석 역사 연구

이유미

(루터대학교 강사)

아가는 성경에서 가장 독특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을 찾아 보기 힘들다. 이러한 아가의 특징 때문에 수세기 동안 아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난제를 붙들고 씨름해 왔다.

본 논문은 아가 해석으로 제기된 것 중 오랜 시간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한 가지 해석 방법인 알레고리적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아가가 가지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인 정경성과 문학적 성격 대해서 알레고리적 방식은 어떻게 해결점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갔는지를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가를 둘러싸고 기독교와 유대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논쟁을 간략하게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서 알레고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아가에 대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발전사를 개괄하고, 마지막으로 천 년 이상을 이어 온 알레고리 해석의 문제점과 아가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아가를 지혜문학 범주에서 해석하는 해석적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Allegorical Interpretations of the Song of Songs

Prof. You-Mee Lee
(Luther University)

Although the Song of Songs is included in the canon, the book is filled with the erotic imagery but is not mentioning God and theological themes. The Song of Song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exts to understand. This being so, interpreters who studied the SoS have wrestled with the conundrum through the centuries.

This thesis examines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which wielded strong influence over the exegesis of the Song of Songs. It will treat how allegorical approach offered the way of solving the problems in Song of Songs, such as canonicity and literary nature.

First of all, it briefly deals with the arguments about the Song of Songs and then with the role of the allegorical approach in the disputation. In the next chapters, Jewish and christian allegorical interpretations are outlined. Finally, I suggest that though the allegory has the fatal errors, the allegorical approach of Song of Songs is still an available interpretational tool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ng of Songs.